가정

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

성경이야기

안녕하세요, 친구들! 엄마가 "방 청소 다 했니?" 하고 물어보셨는데, 장난감은 치웠지만 책이랑 이불은 그대로 두었다면 정말 다 한 걸까요? 또 손을 씻으라고 해서 물만 묻히고 비누로는 안 씻었다면 깨끗해졌을까요? 아니에요. 조금 한 것과 다 한 것은 달라요.

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.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야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므낫세, 에브라임, 스불론, 아셀, 납달리 같은 여러 지파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. "이 정도면 괜찮겠지." 하면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함께 살게 하거나, 일을 시키며 남겨 두었어요.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.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. **함께 살다 보면 그들의 나쁜 습관과 우상을 따라 하게 될 것을요.**

부분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.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. 우리는 어떨까요? 부모님이 "이제 그만!"하시면 바로 멈추나요?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바로 사과하나요? 조금 미루고, 조금 남겨 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,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요.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도록 힘을 주세요. 혼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.

우리 함께 따라 말해 볼까요?

"하나님, 조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래요!"

예배순서

사 도 신 경	.....	다 같 이
찬 송	나는 예배자입니다.	다 같 이
말 씀 봉 독	사사기 1:27~36절	다 같 이
설 교	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	설 교 자
말 씀 나 눔	.....	다 같 이
합 심 기 도	.....	다 같 이
축 복 기 도	.....	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
주 기 도 문	.....	다 같 이

★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찬 양

나는 예배자입니다

☚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
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.

조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.

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게 해 주세요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?

2.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?

충일교회 가정사역부